

성도의 빛 1

1977



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

성도의 벗 1977년 1월호

차 례

대관장단

스펜서 더블류 김볼
엔 엘돈 태너
매리온 지 롬니

십이사도 평의회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델버트 엘 스테이플리
리그랜드 리차즈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팩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루스 알 맥콩키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등록번호 라-932

1967년 10월 4일

발행일 : 1977년 1월 1일

매월 1일 발행

제13권 제1호

통권 138호

발행인 겸 편집인 :

엘 에드워드 브라운

번역 : 한국번역 출판부

전화 : 74-6832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종로구 청운동 7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구좌 서울 514091

인쇄인 : 삼화인쇄주식회사

유 건 수

1. 경전을 상고함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
4. 자녀에게 경전을 가르침 제프리 알 홀랜드
6.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톰 지 로즈
8. 가족과 더불어 아더 알 배셋
11. 질의 응답
12. 물몬경 연대표
13. 평온한 마음
14. 아무일도 안할 수 없습니다 블레인 알 워든
16. 심심풀이
18. 요셉 브렌다 블록삼
20. 물몬경 이야기
22. 물몬 일지
27. 리하이의 일곱 혈통
28. 질의 응답
29. 감독과 장로 정원회 회장간의
관계에 관한 지시
30. 지역 지도자 메시지
31. 교회 및 지역 소식



8페이지



6페이지



13페이지



11페이지

© 1976년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관련 소유

성도의 벗의 1년 정기 구독료는 1,200원입니다. 일반호의 권 구독료는 15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호 권 구독료는 25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성도의 벗사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전을 상고함

스펜서 더블류 킵블
대관장

형 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경전을 상고하도록 권고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요 5 : 39)

지난 수년 동안 총관리 직원들은 우리에게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혹은 가족이 함께 매일 복음을 공부하도록 사랑으로 권고해 왔습니다. 또한 교회의 성인 교과 과정의 모든 교재는 표준 경전으로 대체되었으며, 신권 지도자로부터 경전을 읽고 공부하라는 권고를 듣지 못하는 모임은 거의 없사시며 되었습니다.

우리는 현저하게 향상되었다고 믿습니다. 경전을 지참하고 모임에 참석하는 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들은 배우고 토론할 준비를 갖추고 참석합니다. 표준 경전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자녀에게 왕국의 교리를 가르치는 부모가 더욱 많아졌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기쁨과 만족을 느끼며 많은 축복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스테이크와 선교부를 방문하면서 우리는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규칙적으로 경전을 읽고 공부하지 않고 있으며, 인간의 자녀에게 주는 주님의 가르침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간증을 언었으며 “이 곧 좁은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쁘게 지키며 끝까지 참는” 단계에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나이 31 : 19, 20)

충실한 자만이 약속된 보상, 즉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도를 행하는 자”(약 1 : 22)와 주님의 계명에 용기로 순종하는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도를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듣는 자”

가 되어야 합니다. “듣는 자”가 된다는 것은 가만히 서서 우연히 어떤 사실이 들려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구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받아 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나의 음성을 알아 듣지 못하며 또 나의 것이 아니니라.”(교성 84 : 52)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의 끊임없는 권고와 권유 이외에도 경전을 읽어보면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공부하라는 고대 예언자들의 외침이 거의 페이지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하는 것입니다. (딤후 3 : 15) 그러나 우리는 이 외침을 듣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자문해 보아야 할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경전을 갖고 있다는 크나큰 특권과 축복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다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세상의 경험에 지나치게 안주하여 왔고 복음의 가르침을 듣는 것이 너무 습관화 되었기 때문에 복음이 없는 경우란 거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대 배도라 불리우는 영적인 암흑의 긴 밤에서 깨어난 지는 불과 156년 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던 1820년 어느 봄날 이전에는 이 세상이 얼마나 영적인 암흑에 빠져 있었었는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예언자 니파이는 이 암흑시대를 예견하면서 인간에게서 복음이 걸우어진 “비참한 상태”라고 묘사했습니다. (니일 13 : 32 참조)

미대륙에서 물몬경에 나오는 백성의 잔류민들은 1830년 물몬경이 최초로 발행되었을 때까지 14세기

이상이나 전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살아 왔었습니다. 그들의 신성한 기록은 이 복음의 경륜의 시대에 출현될 때까지 인봉되어있었습니다. 나는 니파이 백성들의 살륙과 멸망의 최후 순간에 유헤와 대학살의 무서운 상황 속에서 있는 위대한 예언자 물몬의 이야기를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예언된 바와 같이 배도의 암흑 시대가 오리라는 것을 물몬경상의 모든 예언자와 마찬가지로 그도 알고 있었지만, 그는 영혼의 고뇌를 느끼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보라 주의 영이 이미 저들의 [레이맨인] 조상 때에 함께 하시기를 그치시었고, 저들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갖지 아니한 자요... 저들은 이제 사탄에게 이끌려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또한 뜻도 없고 닳도 없으며 아무도 젓지 아니하는 배가 파도에 쫓기듯 저들이 그와 같이 쫓기나니.”(물몬서 5:16, 18)

구세계의 백성에게도 역시 닳은 없었습니다. 초기 교회도 사도들이 죽은 이후 배도 시대로 접어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성경의 원본이 있긴 했지만 비교적 소수의 영감받지 아니한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간결하고 진귀한 많은 부분”이 잃어버려진 것은 이 때의 일이었습니다. (니일 13:28, 32 참조)

우리는 이 땅의 청교도로서, 위대한 사업을 이루어야 할 사명을 갖고 이 땅에 보내졌습니다. 이 위대한 사업을 이루기 위하여는 주님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하늘이 침묵하고 성령이 건우어진 영적인 암흑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진실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이정표 없는 광막한 사막에서 방랑하는 자와 같은 것이며, 빠져 나갈 길을 비쳐주는 한 가닥의 불빛도 없는 캄캄한 동굴 속에 있는 자와 같은 것입니다.

월남 전쟁 중 포로가 되어 외부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었던 교회 회원들이 있었습니다. 후에 그들은 음식이나 자유 그 자체 보다도 경전을 읽을 수가 없어 진리의 말씀에 더욱 굶주렸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책장에 가만히 놓여 있는 성경이나 물몬경 한 권을 얻을 수 있기 위해서라면 무엇을 아까워했겠습니까!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 니파이의 감정을 어려운 경험을 통해 배웠던 것입니다.

“이는 경전과 더불어 나의 심령이 기꺼워하며 나의 가슴이 이를 깊게 사모함이라. 나의 후손들이 이를 배우게 하며, 또한 저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고자 내가 이를 기록하노라.

“보라 나의 심령은 주님의 일로 즐거워하며, 나의 마음은 보고 들은 바를 끊임없이 깊게 음미하는도다.” (니파이이서 4:15-16)

예언자 이사야는 대배도에 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

희에게 부여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사 29:10, 니이 27:5 참조)

그러나 곧 이어 이사야는 암흑의 끝남과 물몬경의 출현에 관해 직접 언급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목사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이사야 29:11, 12)

이리하여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어라 하고 약속하신 “기이한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 29:14 참조)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 복음이 회복된 이래, 1,600 만부 이상의 물몬경이 이미 26개 국어로 출판되어 배부되었으며, 현재 15개국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인쇄된 숫자는 어떠한 출판물보다 엄청나게 앞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교리와 성약과 값진 진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귀중한 경전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이들을 활용할 교육 기구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고대 예언자들은 암흑 후에 빛이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교리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가진 자들이 있다는 사실에 두려움마저 느낍니다.

나의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충실함과 성공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자신을 그 이야기와 동일시하는 반면, 실패와 태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일로 생각하려는 오류를 흔히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모두가 경전 공부의 성과를 정직하게 분석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억하고 있는 성구는 얼마 안되면서도 복음을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렇게 볼 때, 약간의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정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언젠가 스스로 경전을 발견해야 하며, 또 한 번 발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시, 그리고 또다시 재발견해야 한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구약 성경의 요시야 왕의 이야기가 깊이 알아 두어야 할 가장 유익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것이 경전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요시야는 불과 8세에 유다를 다스리기 시작했으며 그의 가까운 조상이 극히 사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고 경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하 22:2) 그 당시 (주전 587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두 세대 전) 모세의 기록된 율법이 상실되었으며 신전의 제사들에게까지도 알려져 있지 않았음을 알 때 더욱 놀라운 일입니다.

요시야 왕은 그의 치세 18년에 신전을 재건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힐기야는 모세가 언약케 안에 놓아 두었던 율법의 책을 발견하여 요시야 왕에게 주었습니다.

이 율법의 책을 읽자 요시야 왕은 “그의 옷을 찢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발하신 진노가 크도다.” (열왕기하 22:13)

그 후 왕은 이 책을 모든 백성 앞에서 읽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백성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왕하 23:3) 주님의 모든 계명을 지킬 것을 약속했습니다. 요시야는 모든 우상과 백성이 숭배하던 숲과 산당을 없애고 조상의 치세 동안 누적되어 왔던 모든 악습을 제거하여 유다 왕국의 면모를 일신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율월절을 엄수하였으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열왕의 시대에든지 유다 열왕의 시대에든지 이렇게 율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습니다. (왕하 23:22) 이 모든 것은 그가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와의 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왕하 23:24-25)

나는 우리 모두가 요시야 왕처럼 경전으로 돌아가 경전이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주님께 봉사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시야는 모세의 율법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충만한 복음은 참으로 큰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셨을 때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눅 12:48) 이러한 것을 받았다는 것은 책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계명에 따라 경전을 공부해야 합니다. (니삼 23:1-5 참조) 그리고 우리는 경전이 우리와 자녀들의 생활을 다스리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경전을 갖고 있는 우리는 사랑하는 조상을 위해 우리

의 정성을 바칠 책임이 있습니다. 많은 조상들은 우리를 기다리면서 긴 암흑의 밤을 견디어 왔으며, 지금도 아마 우리가 그들을 위한 사업을 행해 주기를 초조히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보는 눈”과 “들을 귀”를 가진 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음성은 맑고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훌륭한 기회를 무시하는 자에게 올 결과도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직까지 경전을 열심히 상고하지 않았다면 이제부터라도 시작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교회의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인을 위한 교과 과정인 멜기세덱 신권회와 주일학교 복음 교리반에서는 차례로 표준 경전을 공부합니다. 8년에 걸쳐 구약, 값진 진주, 신약, 물몬경, 그리고 교리와 성약을 철저히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이 경전 공부 프로그램을 지지해 주시고 중요시 해 주시기를 바라며, 매일 정해진 분량을 읽고 공부함으로써 상호 연관된 이 프로그램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각 표준 경전은 계획된 연도에 마쳐야 합니다.

금년 3월부터 우리는 물몬경 공부를 시작하여 주일학교에서는 이 책의 역사와 연대를, 그리고 신권회에서는 이 책의 주요 교리와 신권의 의무를 공부하게 됩니다. 내년 2월까지의 니파이일서에서부터 앨마서 29장까지 공부하게 될 것이며 나머지는 1978-79년도에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 훌륭한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말씀하신 대로 “물몬경은 이 세상의 어느 책보다도 가장 정확한 책이요, 우리 종교의 종석입니다. 누구든지 이 책의 교훈대로 생활하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교회 정사 4:461)

이 책을 읽음으로써 여러분은 축복을 받고 풍요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시대들 위해 쓰여졌고 물몬경의 주요 기록자인 니파이, 물몬과 모로나이가 자주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잔류민인 레이멘인과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표제지)을 위해 쓰여진 것입니다. 물몬경을 읽음으로써 역사와 전쟁과 평화에 관한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메시지는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세상의 구속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물몬경을 읽고, 열심히 공부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간증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세주께서는 물몬경의 진실성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주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같이 그 번역은 참되도다.” (교성 17:6) *

자녀에게 경전을 가르침



경전의 말씀을 실천함

제프리 알 홀랜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느헤미야 8:8)

책의 종류를 막론하고 책을 읽을 때에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 말은 책을 읽을 때 눈을 뜨고 혈액순환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도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독서는 이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다시 말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집중하며, 매 페이지 마다 완전히 이해하고, 몰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책을 쓰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훌륭히 읽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경전은 기분 내키는대로 피상적으로 혹은 재빨리 읽어서는 안됩니다. 시간을 들여 읽고 기도하며 정직하게 사색해야 합니다. 니파이서 1장은 아마 물문경 중 우리에게 가장 낯익은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정신을 집중하여 읽지 않으면 많은 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물

문경은 매우 주의 깊게 기록되었으므로 또한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12세의 딸에게 니파이서 1장을 읽히려 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소녀는 유쾌하고 놀기를 좋아하는 성격인데 물문경을 몇 번 읽으려고 시작했으나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부녀 간에는 다음과 같은 대화가 오고 가는 것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빠: 자, 우리 니파이서 1장을 읽어보자. 20절까지밖에 없어, 두 페이지도 못된다. 읽는 동안 생각을 해봐. 의문점도 발견해 보고.

도나: 무슨 의문점이요?

아빠: 아, 이런거 말야, 즉 “왜 이것이 이 책의 첫 장에 나왔을까? “혹은 “이 구절은 다른 구절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와 같은 거지.

도나: 네, 나는 잘 모르지만 왜 우리가 야벳인들에 관한 것부터 읽지 않고 니파이서부터 읽는지 알고 싶어요. 야벳인들이 제일 먼저 미대륙에 살

았잖아요.

아빠: 바로 그런거란다. 넌 이 질문을 하기 위하여 최소한 1분 반은 기다렸지 않니. 자, 네가 이런 문제에 대한 대답을 찾기 시작할 때.

도나: 아빠! 내가 질문을 생각해 내면 답을 가르쳐 주셔야 않아요.

아빠: 성급하기도 하지! 네가 이런 문제의 해답을 알기 시작하면 물문경의 내용은 더욱 명백해 지지. 네가 이더서를 주의 깊게 읽으면 왜 이것이 정확히 현재의 위치에 있는가를 알게 될꺼야. 이 문제는 그때 가서 이야기하기로 하자. 이 책의 거의 맨 마지막에 있으니까. 자, 한 번 읽어볼까?

도나: 좋을대로 하세요, 아빠. (도나가 조용히 읽기 시작한다. 한두 군데에서 조금 막히고는 장의 끝까지 다 읽는다.) 다 읽었어요.

아빠: 좋아, 무슨 말이라고 생각하니?

도나: 아빠, 나는 읽었다고 말했어요. 뜻을 알았다고 말하진 않았잖아

요.

아빠 : 그럼 다시 읽어야 되겠군. 이번에는 약간 느리게 그리고 좀 크게 읽어볼까? 읽으면서 이야기하자.

도나 : 좋을대로 하세요, 아빠. (큰 소리로 읽는다. “나 니파이는 훌륭한 신 부모님에게서 태어나...”)

아빠 : 왜 니파이는 첫구절을 이렇게 기록했겠니?

도나 : 아마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나보죠.

아빠 : 그럴런지도 모르지. 또 다른 이유는?

도나 : 아마 그의 가족에 관해서 이야기 하려는 모양이죠.

아빠 : 그런 이유도 있겠지. 또 다른 이유는?

도나 : 아마 그는 우리에게 그가 누군지 알려주고 싶었던 모양이죠.

아빠 : 그런 이유도 있을거야. 또 다른 이유는?

도나 : 아빠! 이렇게 나가다간 밤새 우겠어요. 난 내일 학교에 가야 되잖아요. 내가 교실에서 이것을 천천히 읽으면 선생님이 화내실거예요. 내가 혼자 끝까지 읽어볼게요. 질문하지 않으면 그냥 놔 두세요. 네?

아빠 : 그래
(도나가 소리내어 읽는다. 천천히,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버지에게 신경을 쓴다.)

아빠 : 좋아 이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지?

도나 : (아빠가 이걸 물어볼 줄 미리 알았으므로 쓴 웃음을 짓는다.) 리하이 라는 사람이 시현을 보고 그의 백성의 멸망을 경고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백성들은 그를 싫어했어요.

아빠 : (도나가 더욱 주의깊게 읽은 것을 알았으므로 미소하며) 훌륭해! 리하이 같은 사람을 뭐라고 부르지?

도나 : 예언자요.

아빠 : 그 시현을 보기 위해 그는 어떤 일을 했지?

도나 : 몰라요. 여기에 없는데요.

아빠 : 나와 있어. 5절을 봐.

도나 : (읽으며) 아, 기도했어요. 난 그냥 지나쳤어요. 페이지를 너무 빨리 넘겼나 봐요. 페이지 맨 밑에 있어 잘 보이지 않았나 봐요.

아빠 : 좋아, 도나야. 너무 빨리 읽어 기도에 관해 기억 못하는 건 너뿐이

아니란다,

도나 : 뭐라고요?

아빠 : 아무것도 아냐. 정확히 말해 리하이는 시현에서 무엇을 보았지?

도나 :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보았어요.

아빠 : 잠깐! 너무 빨라. 예루살렘이 멸망하리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지?

도나 : (다시 읽고) 음, 몇 명의 하늘의 사자가 책을 갖다 주어 그것을 읽고 알았어요.

아빠 : 하늘의 사자가 누구였지?

도나 : 한 분은 예수님이었던 것 같아요.

아빠 :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리하이가 예루살렘이 멸망되리라고 말했을 때 백성들이 그를 싫어했다고 했는데 그들은 어떤 일을 했지?

도나 : (다시 읽고) 그들은 화를 내고 그를 조롱 했어요.

아빠 : 어느 정도로 화를 냈지?

도나 : 음, 결국 그를 죽이려 했어요.

아빠 : 이 1장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적어보자.

예언자가 기도함.

시현을 봄.

하늘의 사자를 봄 (이 중에 예수님같은 분이 계셨음)

책을 받음.

백성들의 백적을 받음.

이것이 네가 묘사한 1장의 대강의 내용이다. 어디서 들은 듯한 이야기 같지 않아요?

도나 : 글썄요. 모르겠는데요.

아빠 : 생각해 봐.

도나 : 네, 요셉 스미스의 경험과 비슷한 것 같아요. 참! 요셉 스미스의 경험과 거의 같아요. 재미 있어요. 왜 그렇지요 아빠?

아빠 : 정말 좋은 질문이야! 모든 예언자들이 대개 비슷한 경험을 한다고 보는데 이것이 한 가지 대답이 될 수 있겠지. 어떠한 경우에도 예언자들은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다는 것이 공통점이야. 요셉 스미스는 계시야 말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이며 이것이 없이는 구원도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단다. 이 책은 계시에 관해 쓰여진 하나의 긴 예언서라는 것을 차차 알게 될게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 인물이란단다. 이 20 개의 구절은 우리가

따르고 행해야 할 바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야. 최초의 장에서 더 이상 훌륭하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리고 물몬경이 이렇게 시작될 때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거야. 아마 우리가 리하이와 물몬경을 받아들인다면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예언자라는 것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일런지도 모르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요셉 스미스를 예언자로 받아들인다면 그가 번역한 이 책도 받아들여 그가 지침대로 충실히 살아야 한다는 거지.

도나야, 이 기록은 니파이, 엘마, 물몬 그리고 모로나이의 간증일 뿐만 아니라 요셉 스미스, 브리감 영, 해롤드 비리 그리고 스펜서 더블류 킴볼의 간증이기도 하지. 물몬경이 완전히 번역되어 발행된 다음에야 교회가 조직된 것도 아마 이 때문일거야.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 물몬경을 가리켜 “우리 종교의 종석”이라고 했단다. 모로나이가 17세의 예언자에게 금판을 준 이후에 생길 모든 일에 대하여 물몬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 요셉이 첫 번째 시현을 보고 모로나이로부터 이 책을 받은 후에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 생각하면 리하이와 같이 14절을 외치고 싶어진다. “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지여! 당신께서 하시는 일이 놀라울고 위대하시나이다.” 도나야, 아빠는 온마음으로 이 책을 사랑하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있단다.

도나 : 아빠, 아빠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전에는 못들어 봤어요.

아빠 : 아빠가 너에게 물몬경을 읽게 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지.

도나 : 10 시가 지났어요! 이 짧은 장에 대해 45 분 동안이나 이야기했어요. 자야겠어요. 야단치지 마세요.

아빠 : 그래, 빨리 자러가.

도나는 침실로 갔습니다. 도나는 이제 물몬경이 참되며 복음이 회복되었다는 확실한 간증을 얻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물론 물몬경의 각 장은 항상 뜻을 밝혀 주고 영감을 주는 의미로 가득차 있다는 것을 도나의 아버지는 알고 있으며 도나도 알게 될 것입니다. 도나가 깊이 잠들었을 때 아빠는 이 특별한 경험이 끝나지 않기를 바라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툼 지 로즈

내가 아내 마틸린과 결혼한 지 1년도 못되었을 때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이 연차 대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성공도 가정에서의 실패를 보상할 수 없습니다.”(대회 보고, 1964년 4월 5페이지)

당시 자녀를 곧 갖게 될 젊은 부부였던 우리는 이 영감에 찬 말씀에 매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말일성도 신혼 부부답게 우리도 자녀를 합당히 키울 수 있으리라는 자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알지 못해 두려움도 없었던 그때를 돌이켜 생각하면 미소를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자녀가 합당하고 의로운 지상 생활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은 바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부모 여러분은 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제이 루벤 클라크, 대회 보고, 1951년 10월, 57페이지)

첫아기의 개성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부모로서의 경험을 조

금 하게 되자 우리는 아기와 우리 자신의 불완전함을 알게 되어 놀랐습니다. 이 때 우리는 부모로서 성공하는 것은 단지 그렇게 되기를 바라기만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의성과 영감과 노력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느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부모 되시는 분들은 거의 모두 한 번씩 이런 느낌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일반적인 원리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원리가 필요합니다.

이 중요한 부모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했던 가장 효과적인 일은 매일 가정에서 경전을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자녀를 일찍 깨워 15분간 경전을 읽었습니다. 마치 육체가 매일 영양과 운동을 필요로 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영도 또한 경전 공부를 통해 매일 강화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의 체계적인 경전 학습 계획은 매일의 경전 공부와 가정의 밤 학습에도

움을 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속된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하여 모세는 부모들에게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신명기 11: 18-19)

이 권고를 따름으로써 많은 가정이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매리온 지 톼니 부대관장은 1949년 연차 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 위대한 책과 가까와질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이 책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읽어 주십시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만큼 어리지는 않습니다. 나는 우리 집의 아이와 같이 경전을 읽던 기억이 납니다. 그 아들이 매우 어렸을 때의 일입니다. 나는 이층 침대의 아랫칸에 누웠고 아들은 윗칸에 누워 있었습니다. 우리는 니파이이서의 마지막 세 장을 교대로 함께 읽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의 목소리가 감기도 들리지 않았는데 목원 소리로 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그같은 음성으로 3장을 끝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경전을 다 읽은 후에 아들은 나에게 “아빠, 아빠도 물문경을 읽으면서 울어 보신 적이 있어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래, 나도 그런 적이 있지. 때때로 주님의 영이 나에게 물문경이 진리의 책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면 나는 울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단다.”라고 나는 대답해 주었습니다.

아들은 “오늘 저도 그랬어요”라



고 말했습니다. 경전을 읽는다고 언제나 이같은 응답을 받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응답을 받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경은 우리가 읽고 그 말씀대로 생활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입니다. 이 책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책보다도 우리를 주님의 영광 가까이 해 줄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을 꼭 읽어 주십시오. (대회 보고, 1949년 4월, 41페이지)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님도 또한 어린 시절에 가정에서 규칙적으로 경전을 읽던 일에 관하여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 초기의 사도들과 여러 형제 자매들의 감동 깊은 이야기를 읽으면서 깊은 감명을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집사가 되기도 전인 소년 시절에 나는 매일 밤 어둑고 아직 손질이 끝나지도 않은 다락방에 올라가서 석유 등잔을 켜 놓고 경전을 읽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에게 큰 감명을 주었던 것을 기억합니다……”(엔사인, 1975년 9월호, 3페이지)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만아들 스티븐이 8살이었을 때 우리는 그에게 물론경 한 권을 주어 읽게 했는데 이것은 8세의 어린이에게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스티븐과 나는 매일 아침 다른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서 차례로 한 구절씩 읽었습니다. 그가 모르는 단어가 많았으므로 우리는 자주 읽기를 중단하고 단어나 구절의 뜻을 이야기하거나 읽은 이야기의 줄거리를 다시 반복하여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경전 읽기를 시작한지 두어달이 지나자 매우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아내와 내가 스티븐이 다니던 학교의 사친회에 갔을 때 그의 선생님이 다가오더니 흥분한 어조로 스티븐이 읽기 능력에 큰 향상을 보였다는 것을 아느냐고 물



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스티븐의 읽기 능력은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물론경 읽기는 벌써 한 가지 이익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앞으로 올 이익은 또 얼마나 큰 것일까요? 네, 기다려 집니다. 조지 앨버트 스미스 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가족을 모아놓고 성스러운 경전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요, 의무입니다. 모든 경륜의 시대에 계시된 바와 같이, 모든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을 읽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물론경, 교리와 성약, 그리고 값진 진주를 읽어야 합니다. 집에서 이를 읽기만 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이를 설명해 주어 하나님이 지상의 백성을 손수 다스리신다는 것을 이해시켜야 합니다.”(대회 보고, 1914년 4월, 12페이지)

읽기 공부는 자녀에게 매우 일찍 시켜도 좋습니다. 아기가 10개월 혹은 15개월 될 때부터 어머니 아빠의 무릎에 앉혀 책에 있는 그림을 보며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은 자녀에게 경전을 가르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의 말씀처럼 자녀들을 “앵무새처럼 훈련시켜 구절을 반복시키거나 함께

소리내어 말하도록 한다면 그들은 그것을 감정없이 기계적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 속에는 여러분이 바라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과 관심으로써 자녀의 유익을 위하여 애쓰고 자녀의 가장 참된 친구로서 확신시킬 때에 그들은 여러분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말을 잘 듣게 될 것입니다.”(대회 보고 1902년 4월, 98페이지)

우리와 자녀들이 모든 면에서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는 이때에, 니파이의 가르침대로, 경전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며,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 할 바를 전하여 준다는 것을 믿습니다. (니파이이서 33: 10—11, 31: 20, 32: 3 참조) 방향구가 리하이와 그의 가족을 약속된 땅으로 인도한 것과 같이, 경전은 우리를 “멀리 슬픔의 계곡 저 너머 보다 훌륭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앨마 37: 38—46 참조)

여러분은 부모입니다.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주일학교, 초등학교, 아론 신권 및 청년회, 그리고 신학 연구원 중등부 및 대학부의 프로그램의 교과 과정을 통해 교회는 구원의 계획과 이에 따른 모든 축복에 관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가르치며 여러분의 책임을 완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님께서 언젠가 하신 다음과 같은 말씀에 나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경전을 자신이 수천년 전에 직접 기록한 것으로 느낄 만큼 가깝게 읽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경전을 기록한 사람의 입장이 된 것처럼 느낄 정도로 읽고 있습니까? 이처럼 느끼지 않고 계시다면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와 영을 일상적인 것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다시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언자가 이해하고 생각했던 것, 다시 말해서 그들이 형제들의 유익을 위해서 계획했던 일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와같이 느낄 수 있을 때 하나님에 관한 일과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설교집 7 : 333)

우리는 경전을 별 흥미없이 대할 때가 많습니다. 전혀 노력하지 않고 교훈을 얻고자 할 때가 많습니다. 현대는 방관자의 시대입니다. 힘들이지 않고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경전의 경우에서 만은 노력을 들이지 않고서는 아무런 흥미를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영 대관장은 우리에게 적극적인 태도로 온 마음을 기울여 경전을 읽도록 권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렇게 한 번 읽어 놓으면 경전은 생명을 갖게 됩니다.

물론경에는 바벨탑 시대의 기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갖고 있는 주제는 오늘날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역사적 배경이 바뀌고 복장도 바뀌고 환경도 변하지만 인간 그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인간의 똑같은 문제가 각 세대마다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생활

에 관심이 있다면 물론경에서 큰 흥미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물론경의 전반부를 읽음으로써 가족은 인간의 영원한 문제를 분석해 볼 수 있고, 옛 사람들의 생각을 살펴 볼 수 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우리가 물론경을 공부하고 그 교훈에 따름으로써 다른 어떤 책을 통해서 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경청해야 할 중요한 약속입니다. 물론경에는 신학적 진리가 많이 포

가족과 더불어

아더 알 배셋



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신학 참고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경 속에서 우리는 예루살렘의 뒷거리 거닐 수 있고 베마른 황야를 터덜터덜 걸어 볼 수도 있으며 대양의 소용돌이치는 폭풍우의 속을 향해하고

무성하게 우거진 푸르른 자연을 만끽하고 왕궁과 오막살이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로 국가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이 책에서 우리는 가족 생활과 가족 관계까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경은 표준 경전 중에서 가장 가정이 강조되어 있는 책입니다. 구약은 처음 부분에만 가족의 문제와 기쁨에 관해 취급되어 있습니다.

리하이네는 대 예언자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아버지들과 마찬가지로 가정의 문제를 놓고 씨름하는 자애로운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리하이의 이러한 점을 기억하고 그의 생각과 문제를 우리 자신의 그것과 비교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너무 무관심한 태도로 경전을 읽고, 노력 없이 이해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경전을 대화하는 자세로 읽는다면 책의 내용과 우리 자신의 경험이 섞여 더욱 풍부한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니파이의 말에서 좋은 지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경전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인 줄을 알았기 때문이니라.” (니일 19 : 23)

예전대, 부모는 부모가 되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실을 물론경을 읽음으로써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리하이와 니파이가 똑같은 생명 나무의 시현을 보았는데 니파이만이 물이 더럽다는 것을 볼 수 있었던 이유를 부모들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니파이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부친께서는 다른 일에 정신을 쏟으신고로 그 물의 더러움을 보시지 못하였다.” (니일 15 : 27) 아버지인 리하이는 니파이가 알지 못하는 것 즉 가장으로서의 책임에 정신을 쏟고 있습니다. 리하이는 시현 중에서 강을 보자 가족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두 아들을 보고 그에게 오라고 손짓했습니다. 더우기 그는 레

이맨과 레뮤엘이 그들과 함께 있지 않음을 걱정하여 이들을 찾는 데 온 정신을 기울였으므로 시현에 나타난 것을 일일이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한편 니파이는 아직 아버지로서의 경험이 없었으므로 시현을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시현에 나타난 구체적인 것에 더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물이 더럽다는 자세한 것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리하이도 이를 보았으나 가족에 대한 염려때문에 자세히 살펴 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되시는 분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환상적인 사람이라는 조롱을 받은 남편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재산을 남겨 두고 그를 따라 황야의 불안정한 생활을 해야 했던 새라이아의 어려움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녀 자신은 시현을 보지 못했음을 기억하십시오. 어머니 되시는 분은 새라이아가 광야에서 어려움이 극에 달했을 때 집과 재산 뿐만 아니라 네 명의 아들까지도 잃을까 두려운 나머지 남편에게 불평을 한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니일 5 : 1-7 참조)

가장 되시는 분은 리하이가 깊어졌던 것과 똑같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느껴야 합니다. 그의 신앙은 아내의 의심과 염려로 인해 시현을 받았던 것입니다. 주님이 그를 지지하셨고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 순간의 당황과 좌절감을 안정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리하이의 예언자로서의 신앙은 가장으로서의 염려와 끊임없는 씨름을 해야 했습니다. 그의 역할은 복잡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복잡함을 이해할 때 인생의 전체적인면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리하이를 예언자의 측면에서만 보는 사람은 물론경이 가장의 역할에 관해 다루고 있는 면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은 리하이와 새라이아의 자녀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툼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의 생활의 재미 있는 일면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형들이 주님의 예언자인 아버지를 믿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었던 것으로 인해 느꼈던 니파이의 좌절감을 이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레이맨과 레뮤엘이 동생의 우월감을 가진

듯한 태도를 보고 느낀 불쾌감을 이해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야콥이 형들을 사랑하고 싶어하며 모범을 발견하고자 하나 오직 불화만을 발견한 것에서 자신을 야콥과 동일시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야콥의 글을 읽고 그의 초기 생활의 고통을 있는 분은 가정에 관한 그의 설교가 지니는 많은 연민의 정을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가정 불화를 몸소 체험했고, 대양을 건너 무서운 여행을 할 때 형제 간의 싸움을 목격했고, 리하이와 새라야아가 거의 죽게 된 것을 보았으며, 니파이의 아내와 자녀들의 기도와 간구하는 소리를 들었고, 리하이가 죽은 후 가족이 분산되는 것을 본 야콥은 가정 생활에 관한 깊은 의미를 지닌 설교를 했습니다. 그의 훗날의 설교는 초기에 느낀 그의 감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어른의 아버지인 것과 같이 그 가족은 물몬경에 나오는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이 책을 읽을 때 이와같은 가족 관계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 관계에 유의할 때 이 책의 이야기가 더 흥미 있고 깊은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형제가 분리되고 니파이인과 레이맨인 간에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우리는 이 최초의 전쟁이 모르는 사람들 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종형제 간에 그리고 서로 잘 아는 백성들 간에 일어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렘이 야콥에게 대적하기 위해 왔을 때 (야 7장 참조) 우리는 야콥이 그의 부모를 알았거나 혹은 적어도 조부모를 알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친구의 아들이나 손자를 볼 때 우리가 아는 그 친구를 연상하면서 보게 됩니다. 친구의 자녀가 반항적이라면 우리의 실망과 염려는 얼마나 클 것이며, 반대로 그들이 부모의 명예가 되었다면 우리의 기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야콥과 시렘 간의 이와 같은 관계를 알 때 우리는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형제 자매의 자녀나 종형제의 자녀나 가까운 친구의 자녀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성숙해 가는 것을 지켜 보는 것은 참으로 흥미 있고 흐뭇한 일이라 하겠습니까. 물몬경을 읽으면 이와 비슷한 일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사

람들도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도 또한 어느 정도까지는 가정 환경의 산물이었습니다. 우리는 물몬경에서 몇 가정의 여러 세대를 관찰해 볼 수 있으며 오랜 기간을 통해 가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눈여겨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기록은 혼란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책임있는 직책을 맡고 있는 부모를 두고 있는 청년은 이노스의 이야기에서 특별한 흥미를 느낄 것입니다. 그들은 이노스가 숲 속으로 들어갈 때 그의 아버지가 예언자였고 삼촌도 예언자였으며 할아버지도 예언자였기 때문에 받은 마음의 부담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성숙함에 따라 스스로 무언가를 발견해야 하며, 스스로의 가치 체계를 세워야 하고, 스스로의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노스와 똑같은 상황하에 있는 사람은 기도의 절실함을 느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서는 이 짐이 때때로 과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들은 독립된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의 길에서 떠나야 한다고 결심하는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교회 지도자의 반항적인 자녀의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그들은 동료들에게 자신이 자유롭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부모의 생활 양식에 반기를 듭니다. 이러한 청년 남녀는 아들 엘마와 모사이아의 아들의 경험을 이해하고 배워야 합니다. 왕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예언자의 아들인 이들은 반항이 행복에 이르는 길도 아니며 진정한 자기 성취의 길도 아님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엘마가 당했던 곤경에 빠져 있는 부모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 자신도 젊었을 때는 반항적이었으나 회개하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다시 그들의 자녀가 어리석게도 똑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 엘마가 노아 왕의 사악한 제사였던 초기의 생활에 관해 아들 엘마는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젊은 시절의 경험을 들추어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할 수 있겠습니까? 젊은 시절에 문제를 가지고 있던 아버지는 반항적인 아들의 문제

와 욕망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권고를 줄 수 있습니까? 우리들 중 이러한 문제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 엘마와 아들 엘마의 이야기를 읽으며 큰 흥미를 느낄 것입니다.

때때로 조부모가 부모보다 자녀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모사이아의 아들들의 경우였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들의 선교 노력에 관한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베냐민이 그의 백성에게 한 마지막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모사 1-4장 참조) 나는 모사이아의 아들들이 그 말씀의 사본을 가지고 있었는지 궁금히 여겨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손자들이 결국 할아버지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원리를 행동화한 것을 알면 할아버지는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을 것이 확실합니다.

물몬경에는 이러한 가족적인 관계가 많이 다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관계를 암시하고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아버지 엘마의 아내는 누구였습니까? 엘마와 함께 광야에서의 경험을 견디었으며 아들의 반항을 견디기 위해 싸웠으며 그녀가 죽었다면 엘마가 이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져야 했던 그 여인은 누구였습니까? 그리고 남편인 아버지 엘마가 대부분의 시간을 주님을 위해 선교사로 봉사하는 동안 세 아들(적어도)을 키운 그의 아내에 관해 우리가 할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녀는 경전에 나오는 위대한 인간 중의 한 사람입니다.

물몬경에서 가장 흥미있는 것 중에는 이처럼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물몬경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백성들의 가족 역사의 일부가 되는 관계를 재구성해 보고 공백을 메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물몬경에 나오는 이들 가족의 주요 관심사는 오늘날의 그것과 같습니다. 이는 영원한 관심사이며 인생의 결코 변하지 않는 면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물몬경은 우리 시대의 교과서입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창조적인 방법으로 읽어야 합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님의 말씀처럼 물몬경을 읽을 때는 이것을 기록한 사람의 입장이 되어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언자가 이해했던 것을 이해할 수 있으며 하나님에 관해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

이곳에 소개되는 대답은 참고로 쓰여지는 것이며 교회의 교리가 아님을 밝혀둔다.



몬트 에스 나이먼
브리감영 대학교 고대 경전 담당 부교수

물문경 가장 정확한 책

물문경이 “가장 정확한 책”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 책에는 충만한 복음이 어떻게 담겨 있습니까?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물문경이 “지상에 있는 어떠한 책보다도 가장 정확한 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역사[교회 정사] 4: 461). 때때로 사람들은 “정확한”이라는 단어를 완전하다는 의미로 해석하여 물문경이 문법, 철자, 구두점, 용어의 명확성 기타 모든 기술적인 면에서 완전할 것을 기대합니다. 때문에 초판 이래로 많은 수정이 가하여졌다는 사실을 알고는 실망을 표합니다. 최초의 원고가 받아쓰기에 의해 작성된 것이며 이것을 구두점도 붙이지 않고 발행인에게 보냈다는 것을 생각하면 후에 변경이 필요했다는 것은 족히 이해가 됩니다. 예언자 자신이 두 차례의 개정을 감독하여 형식상의 오류와 표현의 애매함을 바로잡았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물문경을 “가장 정확한 책”이라고 한 것은 이러한 피상적인 것이 아닌 보다 중요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물문경이 “가장 중요한 책”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물문경은 우리 종교의 중석

입니다. 누구든지 이 책의 교훈대로 생활하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교회 정사 4: 461) 예언자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종교적인 교리의 정확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충만한 복음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정확한 것입니다.

충만한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물문경에는 회복된 복음의 모든 교리 즉 영원한 결혼, 세 등급의 영광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충만한 복음을 담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천사 모로나이는 요셉 스미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판에 기록된 책이 묻혀 있고…… 구세주께서 친히 고대 주민들에게 전하신 바 온전한 복음이 적혀 있다…….”(요셉 스미스 2서 34 참조) 물문경이 충만한 복음을 담고 있다는 주님의 말씀은 교리와 성약에도 여러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교성 20: 9, 27: 5, 35: 17, 42: 12 참조)

주님이 말씀하신 충만한 복음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니파이삼서 27: 13-22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인간이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와 속죄를 받도록 함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구세주께서 정하신 조건에 합당한 자는 심판의 날에 아버지 앞에서 무죄하다고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이 조건은 (1) 그리스도의 속죄를 위한 회생을 믿으며 (2) 모든 죄를 회개하며 (3) 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 것은 곧 주님이 그들을 위하여 설명해 주신 권능이요 합당한 방법입니다. (4) 성신을 받음으로써 성결케 되는 것, 곧 모든 죄를 극복하고 순결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충만한 복음이란 인간이 하나님의 면전에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하는데 필요한 계획이요 원리요, 의식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성경에도 있으나 물문경에서처럼 명백하지 않습니다. 해롤드 비리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물문경을 읽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에 부분적으로 나와 있는 많은 교리들이 물문경,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에는 아름답게 설명되어 있습니다.”(임프루브먼트 이라, 1969년 1월호, 13-14페이지)

교리와 성약 그리고 값진 진주는 인간이 해의 왕국으로 승영하는데 필요한 교리를 보다 더 이해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원리 즉 충만한 복음은 물문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승영에 이르는 길로 가려면 이러한 원리와 교훈을 알아야 합니다.

물문경에 나오는 원리를 이해하고 실생활에 적용함으로써 생활의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는 실례를 여러 번 보아왔습니다. 우리가 물문경을 공부하면 가장 정확한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그 원리대로 생활할 때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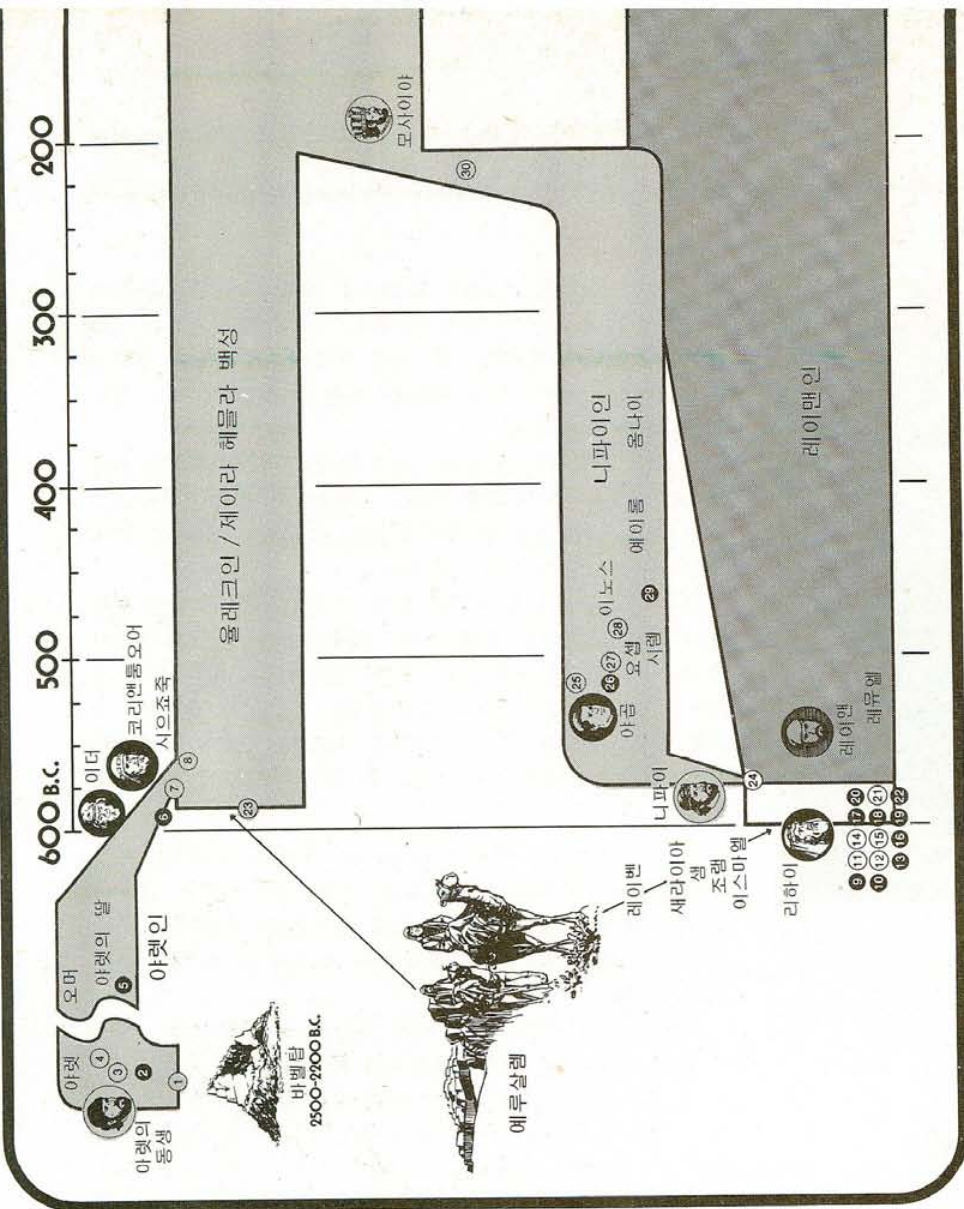
물문경 연대표

본 도표는 21페이지에 계속된다. 본 도표를 있는 그대로 두고 사용하거나 혹은 본 페이지나 21페이지의 도표를 오려서 테이프로 붙여 사용할 수도 있다.

- 중요한 것
- 덜 중요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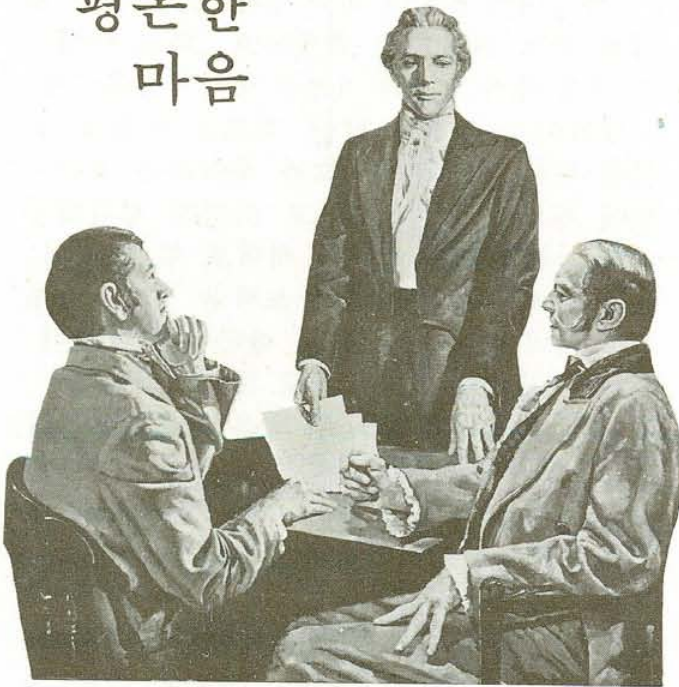
- 1 바벨탑-아랫인의 언어는 혼동되지 않았음. (이디 1 : 33-37)
- 2 아랫인이 큰 바다로 나아가 배를 만들. (이디 2 : 1-18)
- 3 아랫의 동생이 전세의 그리스도를 봄. (이디 3 : 6-16)
- 4 아랫인은 약속된 땅을 향해 여행함. (이디 6 : 1-12)
- 5 아랫과 에이키시의 비밀 결사(이디 8 : 7-19).
- 6 에덴자 이디가 코리엔통오어 윗과 아랫인들에게 경고함(이디 12 : 1-5, 13 : 1-22).
- 7 아랫인의 렘방(이디 15 : 13-32)
- 8 코리엔통오어-물레크인에 의해 발견된 아랫인의 마지막 생존자. (이디 15 : 32, 물 20-22 참조)
- 9 에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리하이의 시현(니일 1 : 6-15).
- 10 리하이가 에루살렘을 떠나라는 명을 받음. (니일 2 : 1-4).
- 11 리하이의 가족이 에루살렘을 떠남. (니일 2 : 1-4)
- 12 니파이와 그의 형제들이 레이벤의 뜻과 관을 얻음. (니일 3 : 4)
- 13 레이벤의 종 조렘이 리하이의 가족과 동행함. (니일 4 : 35, 38).
- 14 이스마엘의 가족이 리하이의와 합세함. (니일 7장)
- 15 생명의 나무에 관한 리하이의 꿈. (니일 8장)
- 16 니파이의 시현과 예언. (니일 11-15장).
- 17 방황구 받침. (니일 16 : 9-16).
- 18 니파이의 활이 부러짐. (니일 16 : 18-32).
- 19 이스라엘의 죽음. (니일 16 : 34-39).
- 20 바운티폴에서 배를 만들. (니일 17 : 8-17, 18 : 1-5)
- 21 약속된 명으로의 여행. (니일 18 : 5-23)
- 22 니파이가 두개의 판을 만들. (니일 19장).
- 23 물레크인이 에루살렘을 떠남. (물 15, 16장)
- 24 니파이인-레이맨인의 분리. (니일 5장)
- 25 아람이 니파이에 이어 에덴자가 됨. 니파이의 죽음. (야 1장)
- 26 아람의 딸. (야 2-6장).
- 27 시렘이 아팜을 만남. (야 7장)
- 28 이노스의 피가 사하여짐. (이노)
- 29 레이맨인에게 복음을 가르치려는 노력의 수



- 1 노아의 아들 림하이가 속박받는 니파이 백성의 왕이 됨. (모사 19장)
- 2 24개의 금관이 발견됨. (모사 21 : 25-27).
- 3 암몬이 림하이의 백성을 제이라헤물라로 인도함. (모사 7 : 22)
- 4 아버지 엘마와 그의 추종자들이 힐렘에서 속박을 받음. (모사 23 : 24)
- 5 엘마의 백성이 구출을 받아 제이라 헤물라에 도착함. (모사 24 : 13-25)
- 6 아버지 엘마가 제이라헤물라에 있는 니파이인들 다스리는 지배자가 됨. (엘 4 : 18).
- 7 아들 엘마의 개종과 모사이아의 네 아들. (모사 27장)
- 8 모사이아의 네 아들이 레이맨인들에게 선교하기 위해 떠남. (모사 28 : 1-9).
- 9 아들 엘마가 기록 보관자가 됨. 또 초대대 판사가 되고 니파이인의 대제사가 됨. (모사 28 : 20, 29 : 42-44)
- 10 판사 치제가 시작됨. (모사 29 : 44).
- 11 모사이아 아세와 아버지 엘마의 죽음. (모사 29 : 45 : 46)
- 12 니하가 니파이인들간에서 복음을 돈을 받고 파는 일을 시작함. (엘 2 : 1-31)
- 13 에물리색이 니파이인들의 왕이 되려고 노력함. (엘 2 : 1-31)
- 14 아들 엘마가 판사의 직을 니파이하에게 넘겨 줌. (엘 4 : 11-20).
- 15 아들 엘마와 엠올레크가 엠몬아이하 사람들과게 전도함. (엘 8-10, 11, 13장).
- 16 지에즈물이 개종함. (엘 11 : 14, 15장).
- 17 엠몬아이하시가 레이맨인의 군대에 의해 멸망됨. (엘 16 : 1-12).
- 18 아들 엘마와 모사이아의 네 아들의 재결함. (엘 17 : 1-4).
- 19 라모나히 왕과 그의 가족이 개종함. (엘 17 : 18-19)
- 20 암몬과 라모나히가 라모나이의 아버지를 만남. (엘 20장).
- 21 암몬이 라모나히의 아버지와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도함. (엘 22장).
- 22 암타이-니파이-리하이가 개종함. (엘 23-25장, 27장)

- 13 노아의 아들 림하이가 속박받는 니파이 백성의 왕이 됨. (모사 19장)
- 14 24개의 금관이 발견됨. (모사 21 : 25-27).
- 15 암몬이 림하이의 백성을 제이라헤물라로 인도함. (모사 7 : 22)
- 16 아버지 엘마와 그의 추종자들이 힐렘에서 속박을 받음. (모사 23 : 24)
- 17 엘마의 백성이 구출을 받아 제이라 헤물라에 도착함. (모사 24 : 13-25)
- 18 아버지 엘마가 제이라헤물라에 있는 니파이인들 다스리는 지배자가 됨. (엘 4 : 18).
- 19 아들 엘마의 개종과 모사이아의 네 아들. (모사 27장)
- 20 모사이아의 네 아들이 레이맨인들에게 선교하기 위해 떠남. (모사 28 : 1-9).
- 21 아들 엘마가 기록 보관자가 됨. 또 초대대 판사가 되고 니파이인의 대제사가 됨. (모사 28 : 20, 29 : 42-44)
- 22 판사 치제가 시작됨. (모사 29 : 44).
- 23 모사이아 아세와 아버지 엘마의 죽음. (모사 29 : 45 : 46)

평온한 마음



금판에 새겨진 고대의 글을 번역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은 주님께서 특별히 준비하신 분이 해야 했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영적인 성품을 지니고 있었고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물문경을 번역하는 일에 합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번역에 도움이 되도록 요셉은 금판과 함께 “고대인들이 우리와 동심이라고 부른 이상한 것을 발견했는데 은테에 두 개의 투명한 보석이 가슴판에 연결된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또한 선견자의 들이라 불리우는 계란형의 갈색 돌을 사용하여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은 예언자의 친구인 피터 휘트머의 집에서 했습니다. 이 곳에서 올리버 카우드리, 엠마 스미스(요셉의 아내), 휘트머 가족 또는 마틴 해리스가 예언자의 말을 받아 기록하였습니다.

마틴 해리스는 선견자의 들에 “문장이 나타나고 예언자가 읽으면 다른 사람이 받아 썼으며 다 썼으면 ‘썼습니다’ 하고 말하며 올바로 썼을 때 선견자의 들에 나타난 문장이 사라지고 다른 문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올바로 기록되지 않았을 때는 고칠 때까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하여 번역은 판에 새겨진 것과 똑 같게 되었습니다.

우리과 동심 그리고 선견자의 들의 도움을 받았지만 신성한 기록을 번역하는 것은 예언자의 피나는 노력과 영적인 힘을 요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친구인 데이비드 휘트머는 예언자가 번역하는 도중 때때로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번역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요셉은 세상적인 일에 너무 관심을 쏟았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요셉은 집안 일로 아내 엠마와 기분 좋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올리버 카우드리와 데이비드 휘트머가 받아 쓰려고 기다리고 있는 이층으로 올라갔으나 기분은 여전히 언짢았습니다. 그는 번역을 해보려 했으나 한 문장도 번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요셉은 아래층으로 내려가 과수원으로 가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한 시간 가량이 지난 후에 요셉은 겸손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 아내 엠마에게 이해심이 부족했던 것에 대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층에 올라가 어려움 없이 번역할 수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휘트머도 왜 예언자가 한 시간 전에는 번역을 할 수 없었는지 알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이 얼마나 엄격하신지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주께서 보시기에 올바를 때에만 계시를 주십니다. *

영길이는 무엇하나 제대로 해내는 일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도와 물주전자를 방안으로 가져 오다가는 떨어뜨려 온 방안을 물바다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 아버지를 도와 꽃밭에서 잡초를 뽑는다고 하다가는 꽃나무까지 뽑아 버렸습니다. 그의 형, 안영이가 그에게 연을 날리게 했을 때도 연을 나무에 걸리게 하여 모두 엉켜 버리게 했습니다. 영길이는 구두끈도 제대로 못 매어서 늘 매듭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영길이는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리라고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는 옷을 입고 잠자리를 정돈했습니다. 그리고는 잠옷을 벗어 서랍 속에 개어 넣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에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영길아, 설탕 좀 집어줄래?” 영길이는 재빨리 설탕을 잡으려고 하다가 팔꿈치로 국 그릇을 건드려 형의 무릎 위에 엎질렀습니다.

“영길아, 넌 왜 제대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니?” 국물이 바지에 평하게 뻗 안영이가 야단쳤습니다. 영길이의 아랫 입술이 바르르 떨리더니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그럴 때도 있지 뭐 그러니 안영아.” 하고 어머니는 나직히 말했습니다. “좀 이해심을 가져야지.”

“영길이가 8살이 되기 전에 무슨 일을 제대로 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고 안영이는 옷을 갈아 입으러 가면서 중얼거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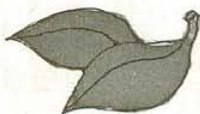
영길이는 조용히 밥만 먹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영길이는 그가 좋아하는 울타리 밑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나 제대로 할 수 없어. 오늘 아침에는 무척이나 노력을 했지. 하루 종일 여기 앉아 아무 일도 안하는게 좋겠어. 그러면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을 것 아냐!. 가세이 생각해보니 매우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안할테야.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할테야.”

그래서 영길이는 울타리에 기대어 편한 자세로 앉았습니다. 햇볕은 따듯했고 라이락꽃 냄새가 풍겨 왔습니다. 땅에는 개미 두



“아무일도 안할 수 없습니다”

블레인 알 워든 글
스테파니 클라크 그림





마리가 우산처럼 넓은 나무잎을 열심히 운반하고 있었읍니다. 아무 것도 안하고 가만이 있으니 좋았읍니다. 게다가 가만이 있으면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을 수 있었읍니다.

바로 그때 무언가가 꺾기에 웅 하고 스쳐 지나갔읍니다. 깜짝 놀라 가슴이 두근거렸읍니다. 그러나 별새였음을 알고 안심했읍니다. 별새가 날아가는 것을 바라 보면서 그는 웃음이 났읍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 그런데 심장은 계속 뛰고 있거든 하고 생각했읍니다. 갑자기 영길이는 자기가 무엇가를 하고 있음을 깨달았읍니다. 그는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길은 보지도 않으려고 눈을 감았읍니다. 그런데 손에 이상한 감촉을 느꼈읍니다. 눈을 뜨고 내려다 보았읍니다. 노란 썩기 벌레였읍니다. 그는 웃으면서 벌레를 라이락 앞에다 올려 놓았읍니다. '느끼는 것도 무엇을 하는 것이야.' 하고 생각했읍니다. 아무것도 안하기도 힘든데.

그는 깊이 숨을 들이 쉬었읍니다. 한숨을 쉬고는 숨쉬는 것도 무엇인가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읍니다. 갑자기 그는 생각하는 것도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겼읍니다. 그는 울타리 밑에 앉아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려면 안할 수도 있겠지 하고 생각하고 눈을 감고 앉아 아무생

각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읍니다.

그러나 새가 우는 소리가 들리자, 영길이는 자기가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읍니다. 듣는 것도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 영길이는 다른 소리를 들었읍니다. 어머니가 점심을 먹으라고 부르는 소리였읍니다. 그는 또 무엇인가 하고 있음을 알았읍니다. 배가 고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길이는 일어나서 집으로 달려 갔읍니다. 손을 씻고 식탁에 앉자 어머니가 그에게 오전 내내 무엇을 했느냐고 물었읍니다.

"혼자 울타리 밑에 앉아 가만이 있으려고 했어요. 그러면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을 게 아냐요."하고 영길이는 대답했읍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안하기는 힘들다는 걸 알았어요.

"힘든 일이지."하고 어머니가 말했읍니다. "그래서 뭘 했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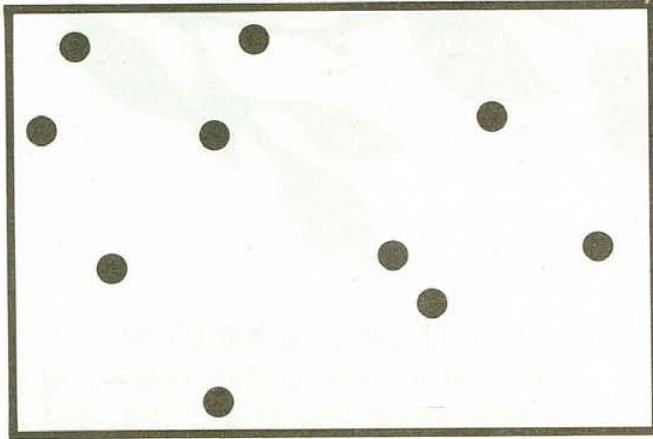
"음...라이락 향기를 냄새 맡고, 썩기 벌레가 손등에 기어가는 걸 느꼈고, 벌새를 보았고, 개미 두 마리도 보았어요. 새가 노래하는 것과 어머니가 점심 먹으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계속 숨쉬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배도 고파온다는 걸 알았어요."하고 영길이가 말했읍니다.

어머니는 웃으면서 영길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아침이었잖구나." 영길이도 끄덕였읍니다. *

심심풀이

점 나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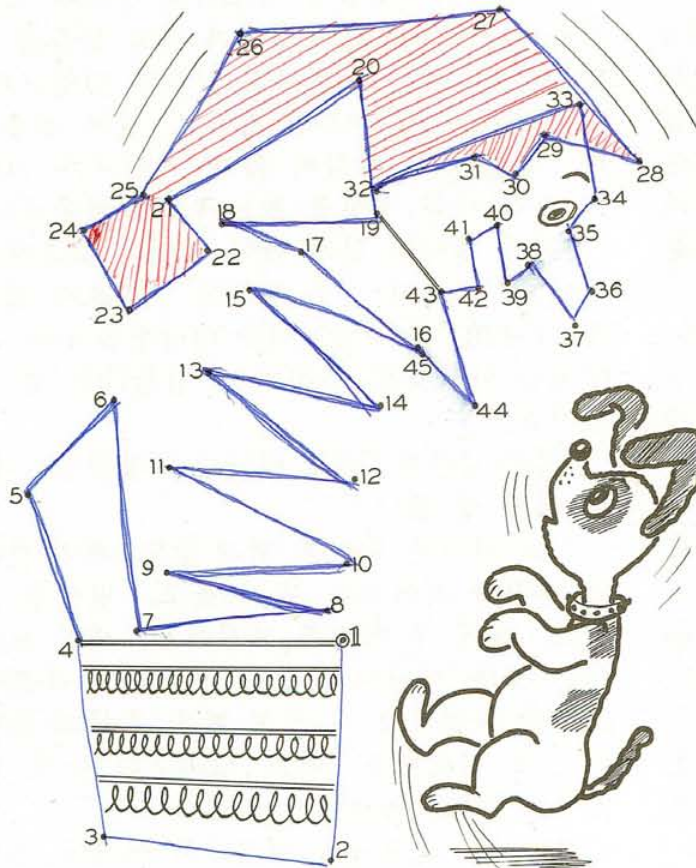
4개의 직선을 사용하여 다음 10개의 점을 하나씩 나누어 보세요.



별모양의 미궁

입구에서 출구로 빠져 나가는 길을 찾아보세요.

점 잇기



정말 웃고 있는거야?

색칠하기

점이 있는 곳에 색칠을 하세요.
어떤 종류의 개가 있나요?



(문제 1이외) 풀이방법

'드공'은 '이' '드' '리' '하'는 : 문제





요셉



브렌다 블룩삼

아버지 리하이는 주님으로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니 가족과 함께 새로운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이에 순종했습니다. 험난한 광야에서의 여행은 8년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니일 17:4) 다시 주님은 그에게 배를 만들어 그들을 위해 준비한 땅으로 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새로운 땅에 도착했을 때 리하이는 이미 노쇠해 있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아들들을 축복해 주기 위하여 하나 하나 불렀습니다. 그는 레이먼, 레뮤엘, 니파이, 션, 그리

고 야곱에게 특별한 축복을 주었고 의롭게 살면 큰 축복을 누릴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리하이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와 그의 형 야곱은 가족이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에 태어났습니다.

먼저 리하이는 그가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말했습니다. 가족이 어려운 여행을 하는 동안 요셉이 가족에게 참으로 큰 기쁨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리하이는 요셉에게 커다란 약속을

했습니다. 그의 후손이 결코 완전히 멸망당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리하이는 요셉이라는 같은 이름을 가진 조상에 관하여 말했습니다. 그는 어린 소년이었을 때 형제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이 요셉은 애굽에서 바로왕 다음 가는 높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주님과 가까이 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

주님의 축복을 받은 그는 그의 아버지와 형, 그리고 많은 백성들을 무서운 기근에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요셉은 시현을 통해 그때까지 지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과 그 후에 지상에 살게 될 모든 사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리하이와 그의 아들 요셉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시현은 다른 사람들이 읽고 알 수 있도록 기록되었습니다.

그는 많은 후손들이 멸망당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그의 후손이 지상에 끊이지 않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리하이와 그의 아들 요셉은 그 가계의 일부였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전에 그들을 이끌어 내신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였습니다. 요셉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애굽의 요셉은 또한 두 개의 신성한 기록이 보존될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는 그의 후손의 역사로서 “요셉의 막대기”라고 불리웠고 또 다른 하나는 구세계의 사람들이 보존해 온 기록으로 요셉의 형제 유다의 후손에 관한 역사입니다. 이것은 “유다의 막대기”로 불리워졌습니다. 이 두 막대기(혹은

역사 기록)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예언자에게 주신 율법과 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셉과 유다의 후손들에게 약속된 모든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기록은 서로가 서로를 증거하여 화평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요셉은 말했습니다.

애굽의 요셉은 말일에 그의 후손 가운데에서 위대한 사람이 태어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요셉의 후손에 관한 기록인 “요셉의 막대기”를 번역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또한 이 기록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많은 백성들에게 믿게 할 것입니다. 이 예언자의 이름도 또한 요셉이며 그의 아버지의 이름도 요셉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예언자가 요셉 스미스 이세이며 그가 번역한 요셉의 막대기는 물몬경이라는 것을 압니다.)

리하이는 요셉의 이야기를 끝내고 이러한 큰 약속을 했습니다. “이 언약으로 하여 네게 복이 있으리니, 너의 자손이 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일 때, 멸망되지 아니하리라.”(나이 3:23) 리하이는 아들 요셉에게 그의 후손이 물몬경을 읽게 될 뿐만 아니라 많은 후손들이 이 책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침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 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요셉은 아직 어린 소년이였으므로 리하이는 요셉에게, 형 니파이의 모범을 따르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도록 권고했습니다. 그러면 이 특별한 축복이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나이 3 장 참조) *

물몬 일지

주님을 사랑하며 복음대로 사는 매일의 생활을 통해 얻는 값지 경험은 모든 말일성도의 가슴에 새겨집니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체험담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은 일,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가 받은 영감, 신권을 활용한 일, 또는 교회의 보조 조직에 관계되는 일로서 여러분의 간증을 더욱 굳게 해 준 체험담이 있으면 교회의 다른 여러 회원들에게 들려 줍시다. 그러한 이야기가 있으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한국 번역 출판부로부터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엘마서 32장은 제 성격을 변화시켰습니다

엘머 제이 바버라이

나는 성격이 비틀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의 나쁜 경험이 나로 하여금 잔인하고 사람을 믿지 않는 성격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나는 항상 불평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쉽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교는 나약한 사람이나 갖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의 능력 만을 굳게 믿었으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 사무실에 새 비서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유쾌하고 늘 명랑하고 사교성이 풍부했습니다. 나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녀는 우쭐대지도 않았으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특별한 인정을 받으려 애쓰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떤 내적인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서부터는 무언가 특별한 빛이 발산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말일성도였습니다.

우리는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자 내 생활이 얼마나 공허한 것이었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또한 그녀의 생활에서 종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지닌 "어떤 특별한 것"이 종교와 관계가 있는 것인가? 그녀는 나에게 종교에 관한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녀는 내가 교회에 다니게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확실히 나의 태도와 생활 방법이 그녀로 하여금 내가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될 수 없으리라고 믿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물몬이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

의 호기심은 더욱 자극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는 혼자 물몬이즘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논리적 사고와 객관적 연구에 자신을 갖고 있던 나는 공립 도서관에 가서 물몬이즘에 관한 네권의 책을 골랐습니다. 두 권은 동조하는 입장에서 쓴 책이고 두 권은 반대하는 입장에서 쓴 책이었습니다. (찬반 양면을 확실히 알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읽기 시작했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종교에 관해 받아들일 수 없었던 모든 점이 물몬이즘에는 없었습니다. 물몬이즘에서 발견한 새로운 개념과 교리는 오히려 참된 것으로 보였고 낯익은 듯한 막연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나는 물몬이즘을 받아들일 수 있겠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에는 물몬경에 관해 많은 것이 써어 있었지만 대부분 물몬경의 기원을 옹호하거나 공격하는 입장에서 쓴 것이지 내용에 대한 말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 반물몬 저자는 물몬경을 읽는 사람에 따라 분명히 조작된 가장 천한 책이라고 느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감에 의하여 쓰여진 것이라고 느껴지기도 하는 아주 특수한 책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책을 혼자 읽어보고 무엇이 특수한 것인가를 알아볼 결심을 했습니다.

물몬경을 읽기 시작했을 때 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감정을 느꼈던 것입니다. 성신이 이 책의 참됨을 나에게 간증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후에 알았습니다. 나는 계속 읽어 나갔습니다. 그리하여 엘마서 32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매우 특



별한 장이었습니다.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
다. “우리에게 하늘의 표적을 보여 준다면 우리가 확
실히 알아 믿으리라고 말하는 자가 많으리라.”

맞았어! 하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
렇게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한다면
왜 한 번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지 않을까.
그때 나는 엘마의 대답을 읽었습니다.

“내가 묻노니 이것을 신앙이라 하겠느냐? 보라 내
가 네게 이르노니 아니라, 사람이 무엇을 알고 있으
면 믿을 필요가 없으리니, 이는 이미 앎이라.”(18절)

잠깐. 뭐라고? 나는 읽고 또 읽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옳은 말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내 생애의
마지막까지 영향을 미치리라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
습니다. 다음으로 나에게 깊은 의미를 준 성구는 27
절이었습니다.

“그러나 보라 너희가 깨어나 너희의 능력으로 나
의 말을 실제로 시험하여 아주 작은 신앙을 품어 보
려 할진대, 비록 너희가 믿겠다는 의욕만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 믿겠다는 의욕이 내 말을 조금이라도 받
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네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게
하라.”

내가 느낀 모든 것, 그리고 내가 해온 생활에도
불구하고 나는 진실로 믿고 싶었습니다.

엘마는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씨앗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이 씨앗을 마음에 심고 복음대
로 생활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이를 키우면 이 씨앗은
가슴 속에서 자라고 부풀어 오를 것이며, 여러분은
이것이 얼마나 훌륭한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물몬경을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물몬경 한
권을 갖고 싶었습니다. 나는 선교사에게 전화했습니
다. 선교사들은 나를 찾아와 이야기하게 된 것을 무
척이나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여섯 가지의 토
론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간증을 가지고 있긴 했으나, 매우 약했습니다. 그것
이 나를 지지해 줄런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엘마의
말대로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칩제를 받고 1년간
완전히 순종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
만 두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5년 전 일이었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지키
고 십일조를 내고 복음 안에서 자라기 시작하자, 나
는 사람들로 부터 전에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
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항상 행복하고 친절해 보
인다는니, 내가 좋은 사람이라느니 나를 존경하고
좋아한다는니 따위의 말이었습니다. 나는 갑자기 모
든 사람이 내 친구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상상도 못하던 방향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이 지난 후 나는 결혼 상대자를 만
나 꿈같은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나는 복음이 생활을 변화시키며, 우리가 그 원칙
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풍성한 축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사우드 다코타로 이민온 한 스웨덴인과 물몬경

제럴드 이 존즈

인구 2,000명도 안되는 사우드 다코타의 케티스버
그 군 도서관에 누가 갖다 놓았는지 모를 물몬
경 한 권이 있었습니다. 케티스버그 지부는 이 책과
그리고 캐묻기 좋아하는 키 크고 후리후리한 한 스웨
덴인 덕분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나
의 생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칼 아이바 샌드버그는 10대의 소년 시절에 스웨덴
을 떠나 성공의 길을 찾아 미국 서북부로 이주했습
니다. 그러나 벌목장에서의 거친 생활에 지친 그는
농사를 지을 결심을 하고 사우드 다코타의 포터 카운
티에 정착하였습니다. 얼마 동안은 은둔하며 독신 생
활을 했으나 부지런히 일한 결과 곧 집과 약간의 땅
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봄에 뿌린 씨에서 싹이 나오고 농장의 가축이 새
끼를 낳는 것을 보고 아이바는 종교에 대해 생각해
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일하면서 바쁘지 않을 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집으로 뛰어 들어가 잠시 동안 성경을 읽곤 했습니
다. 소설을 읽을 때는 모자를 벗을 필요가 없었습니
다만 성경을 읽을 때는 신성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
어 모자를 벗었습니다.”하고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사업에 관해 좀더 배우려면 교회에
다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는 농장에서 15마일 가량
떨어진 케티스버그에 있는 다섯 교회를 찾아가 목사
들과 종교에 관해 토론했습니다. 그러나 만족을 느끼
기는 커녕 실망을 했습니다. 아무도 신약 시대의 교
회에 대한 그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그들
이 가르치는 교리는 옳은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리를 갈망하여 공립 도서관으로 가서 그 곳에 있
던 모든 종교 서적을 읽었습니다. 곧 그는 기독교에
실망하여 코란을 읽으려고 했습니다. 도서관 사서는
다른 도서 담당자가 코란을 찾아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에게 별로 신통치 않지만 다른 “이단 서적이 있는
데 혹시 흥미가 있을런지 모르겠다”고 하며 물몬경을
내 놓았습니다. 아이바는 물몬경을 빌려 집에 왔습
니다.

“나는 물몬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나는 꾸
며낸 이야기를 읽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정도

읽자 나는 가장 놀라운 책을 발견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물이 뺨 위로 흘러 내리고 가장 훌륭한 느낌이 찾아 왔습니다. 내가 물몬경을 읽기 시작했을 때는 모자를 쓰고 있었지만 곧 모자를 벗었습니다.

그 책을 3일 동안에 다 읽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가장 훌륭한 책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내가 알 수 있는 한에서는 이 책이 진실일 수 있었지만 나는 곧 모순점이 발견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 책이 너무나 훌륭하게 생각되어 교회에 다니는 이웃 사람에게 들고 갔습니다. 나는 그가 이 책에 관해 큰 흥미를 느끼리라 생각했지만 3일 후에 다시 가 보았을 때 그는 그 책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책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름을 모방하여 꾸며낸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를 도서관에 반납하고 여름 내내 이에 관해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이 책과 성경과의 모순점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해에 동생 스웨이 나의 일을 도와 주고 있었습니다. 가을 어느 토요일 저녁 그가 게티스버그에 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나는 그에게 도서관에 가서 물몬경을 빌려 오도록 부탁했습니다. 일요일인 다음 날 아침 가족에게 먹이를 준 후 곧 동생이 빌려 온 그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자기 전에 나는 끝까지 읽었습니다. 전보다 더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나는 도서관에 반납하기 전에 한 번 더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참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도서관에는 물몬이즘에 관한 다른 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데저렛 출판사를 그에게 일러 주었습니다. 그 후 2년 동안 그는 많은 책을 주문하여 읽고 완전히 개심하게 되었습니다. 교리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직 한 사람의 말일성도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솔트레이크시티로 가서 침례받기로 결심했습니다.

낡은 포드 차를 타고 와이오밍의 황무지를 달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주 차를 멈추고 힘을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가 최초로 만난 물몬은 북부 유타에서 주유소 직원으로 일하는 비활동 회원이었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야할 지 물랐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그는 솔트레이크시티에 도착하여 템플 스케이에 차를 세우고 경비원에게 교회에 입교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일요일에 아이바는 최초로 참석한 말일성도 모임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하는 간증을 듣고 나는 매우 기뻐합니다. 결국 나는 진실한 형제 자매들 사이에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임이 끝난 후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하고 그는 말했습니다.

아이바는 1934년 10월 1일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성도들과 함께 있고 싶어 당분간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나 장로로 성임된 후 그는 사우드 다코타로 돌아가 교회를 세우도록 권고받았습니다. 그는 다음 해 봄 씨를 뿌리기에 알맞은 때에 떠났습니다.

그는 그 지역을 담당한 선교부장으로부터 그의 집에서 주일학교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는 곧 학교 교사인 밀드레드 벨슨이라는 아름다운 자매를 개종시키고 그녀와 결혼했습니다. 후에 여러 이웃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때 쯤 어떤 이웃 사람이 나의 아버지에게 5 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러한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아버지는 대부분의 교회가 사교 클럽과 같은 것이며 여자들은 최신 유행을 과시하기 위하여 그리고 남자들은 정직하게 보임으로써 사업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다닌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이상하고 배우지 못한 스웨덴 사람에게 “그가 하는 일이 옳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최초로 만난 곳은 교실이 하나 밖에 없는 학교에서였습니다. 그곳에는 20여 명이 참석했었는데 그 중 반은 구도자였습니다. 나는 이 스웨덴 사람의 발음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따뜻하고 고무적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이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후 1년이 채 못되어 아버지는 연못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가족도 후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1948년 게티스버그 지부가 조직되었을 당시 회원은 25 명이었고 아이바 샌드버그가 지부장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 년 전 그가 교회 회원으로 확인받을 때 한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의 제1보좌가 되었습니다.

이 지부는 선교부에서 가장 특이한 것이 있었습니다. 모든 회원의 가족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나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거의 언제나 가족 단위로 교회에 입교했으며 대개 남편과 아버지가 먼저 침례를 받았습니다. 신권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많았으며 여자들은 거의 피아노를 치고 음악을 지도할 수 있었습니다.

샌드버그 형제의 영향을 받은 전형적인 가정은 텍사스에서 온 톰슨 가정이었습니다. 고등 교육을 받은 부부로서 고등 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한편, 농업에 종사하기도 했으며 활동적인 선교 회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섯 아들과 함께 사우드 다코타에서 농장을 하기로 작정하고 이사하던 중, 게티스버그에서 8마일 가량 떨어진 곳에서 작은 예배당을 보았습니다. 호기심도 나고 또한 톰슨 부인이 텍사스에서 꿈도 생각나서 그들은 차에서 내려 아이바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아이바의 옳지 않

음을 지적해 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1년도 못되어 그들은 지부의 활동적인 회원이 되었습니다.

게티스버그 지부 아이바 샌드버그와 물론경 한 권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1949년 픽업 트럭 사고로 그가 죽던 날 나는 그 지부에서 부름을 받던 최초의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그 이후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가 되어 세계 각처로 떠났습니다. 이 중에는 아이바의 다섯 자녀와 부인 밀드레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작은 지부인 이 곳에서 18 가정과 50여 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바가 개종시킨 많은 회원이 지부장, 감독 그리고 와드와 스테이크의 역원이 되었으며 그가 전한 메시지가 아직도 살아 남아 있습니다. *

꿈 속에서 물론경을 읽은 나의 할머니

(루셋타 마리아 말러 앳킨슨의 글에서)

1810년에 태어나신 나의 할머니 리디아 도우너 게이츠가 어린 소녀였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난 할머니는 식구들에게 밤새도록 꿈 속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책의 이름도 기억할 수 없고 내용도 기억할 수 없었지만 그 책의 모양은 확실히 기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리디아는 또 꿈 속에서 그 책을 읽었는데 전날 밤에 읽던 곳에서부터 계속하여 읽었다고 말했습니다. 읽은 것을 기억할 수는 없지만 우리 가족 모두가 알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고, 큰 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밤마다 꿈 속에서 그 책을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녀는 아침에 일어나면 밤에 정말로 쉬지 못한 사람처럼 지쳐서 졸았습니다.

그녀는 식구들에게 그 책의 모양, 즉 길이, 넓이, 두께, 제본 등 식구들이 그 책을 보면 알아 볼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식구들은 가는 곳마다 책방에서 그 책을 찾아 보았습니다. 누가 집에 책을 팔러 오면 그들은 리디아가 말한 책이 있는가 주의해 보았습니다. 그녀는 누구네 집에 가든 그 책을 찾아 보았습니다. 리디아는 그 책 속에 분명히 가족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후 숙모가 그녀에게 여행을 떠나기 때문에 잠시 와서 집을 보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리디아는 기쁘게 승락했습니다. 숙모는 떠나면서 “리디아야 책을 읽고 싶으면 저 상자 속에 몇 권이 있으니 읽으려 마” 하며 침실에 있는 나무 상자를 가리켰습니다.

할 일을 끝내고 리디아는 상자에다가 가서 책을 뒤적였습니다. 그는 한 권씩 꺼내서 옆에 놓았습니다. 다음에 무심코 다른 책을 잡으려고 할 순간 꿈 속에서 본 책이 그 곳에 있었습니다! 그 책을 꼭 움켜쥔 그녀의 손은 떨렸습니다. 기쁜 감정이 온 몸을 휩쌌습니다. 후에 그녀는 그 때의 느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천장까지 올라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책을 펴 읽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모두 읽은 기억이 났습니다. 나는 끝까지 읽었습니다. 두 번째 읽는 것 같았습니다.” 그 책은 물론경이었던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1838년 미시건주의 리보니아에 왔을 때 리디아와 그녀의 남편 새뮤얼 게이츠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성도들과 함께 서부로 가서 유타주의 린(지금의 워든)에 정착했습니다. 리디아는 그 후 많은 자녀를 기르며 84세에 이르도록 헌신적인 말일 성도로서 살았습니다. *

리디아 게이츠의 3대 손녀 카렌 뱍코크 제공



성경을 가르쳐 주는 물론경

존 에프 하이덴라이히

신 학교를 나오고 다른 교회에서 수년간 목사의 일을 보아왔던 나는 처음 물론경을 읽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개종하기 전에 나는 현대적 사고와 성서의 자유로운 해석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경전 내용의 많은 부분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각기 다른 것을 주장하며 “이것이 진리다!”라고

의칠 때 나는 명백한 판단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갈망하는 통일적인 진리를 알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탐구하는 중에 물몬경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책이 굉장한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진리에 굶주린 나는 이 책을 7개월 동안에 성경과 비교하면서 5번이나 읽었습니다. 이것은 내 생애에서 가장 큰 성과를 가져다 준 노력이었으며, 가장 값진 시간의 투자였던 것입니다.

물몬경에 관한 가장 놀라운 발견은 성경의 의미를 명백히 해준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고 놀랐지만 후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성경과 물몬경은 서로 보완하여 에스겔서 37장 16—17절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는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나는 에스겔이 말한 막대기가 두루말이 다시 말해서 막대기에 감은 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두 막대기가 신약과 구약이라고 주장합니다만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을 통한 요셉 지파는 신구약 성경의 존재와는 별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는 성경 전체와 가까운 관련이 있습니다. 다윗왕의 지파는 나사렛 예수를 비롯한 성경상의 위대한 왕과 예언자와 마찬가지로 유다를 통해 왔습니다. 다른 한편 물몬경은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의 후손인 위대한 니파이인 예언자 ‘왕’ 판사들이 기록하거나 요약한 것입니다.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에스겔의 예언은 성경과 물몬경에 관한 것입니다.

그때까지 내가 받았던 성경의 많은 기본적인 지식이 비로소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담의 타락이 인간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 필요한 한 단계라는 참다운 의미를 몰랐었으나, 물몬경을 읽으므로써 정통파 기독교에서 해석하는 것처럼 아담이 인간의 타락에 책임이 있는 악인을 배웠습니다. 인간의 조건을 대표하고 있는 아담과 이브는 그들의 무죄한 상태를 버리고 선과 악을 구별해야 할 무거운 책임을 졌습니다.

무죄하고 순결한 작은 아기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그 아기가 항상 무죄하고 순결한 상태에 있는 아기로써 남아있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성장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큰 비극이겠습니까? 물몬경에 기록된 다음의 말씀이 귀하고 의미가 깊게 생각되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범법치 않았다면] 저들은……자녀를 갖지 못하였을 것임에 무지한 상태에 머물어 비참함을 알지 못

함에 기쁨이 없고, 죄를 알지 못함에 선을 또한 행하지 못하였을 것이나……

“아담이 타락한 것은 인간을 낳게 하려함이요, 인간이 존재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이니라.”(니이 2: 23, 25)

물론 아담과 이브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선택을 잘 못한테 대한 대가를 받았습니. 또한 우리와 마찬가지로 올바른 선택을 했을 때 오는 기쁨도 맛보았습니다.

물몬경은 특히 이사야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구약 시대의 위대한 예언자 이사야의 영적인 힘을 물몬경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의 많은 중요한 예언을 물몬경을 통해서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물몬경에서 나는 이방인이 이스라엘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커다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온 인류의 구원을 가져다 주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니일 22: 3—12)

물몬경에는 성경과 똑같은 신앙에 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또한 성경과 다른 면도 있습니다. 예컨대 엘마서 32장은 신앙을 훌륭한 씨앗에 비유하면서 지식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를 읽고 나는 신앙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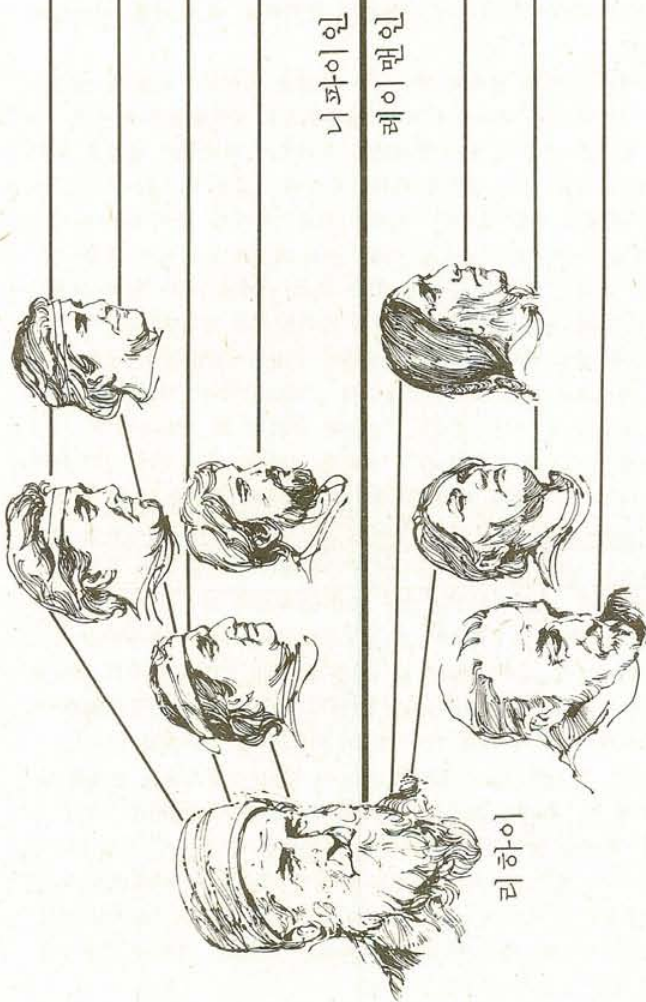
물몬경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세주라는 간증에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성경의 주요 내용이기도 합니다.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물몬경의 관념은 신약 성서를 일관하는 예수님의 일생을 강조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다른 경전이 불필요하다는 물몬경 반대자들의 주장은 마태복음이 있으니 다른 세 복음은 필요없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복음서가 서로 증거가 되고 지지하는 것과 같이 물몬경은 성경을 증거하며 지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팔레스타인에서 성역을 베푸셨던 기간은 3년인데 반해 니파이인들 간에서 성역을 베풀던 기간은 불과 며칠간이었지만, 니파이삼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니파이인에 대한 주님의 사랑과 주님에 대한 그들의 절대적인 호응을 볼 때 그의 지상 생활의 면모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서 양쪽 세계에 있는 그의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서에 기록된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의 의미가 명백해 졌습니다.

물몬경은 주님의 영으로 차 있으며 이 영을 가지고 읽을 때 우리는 이것이 참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물몬경도 사랑하실 것입니다. 이는 물몬경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



리하이의 고품통



니파이인
야곱인
요셉인
조람인

니파이인

레이맨인

레이맨인
레뮤엘인
이스마엘인

인 반적으로 우리는 리하이의 후손을 니파이인과 레이맨인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 생각한다. 그러나 그 후손은 사실상 훨씬 복잡하다. 주전 수세기 전부터 니파이인들은 베그림으로 나뉘어졌다. 그리하여 도합 7개의 고품통으로 나뉘었다.

- 니파이인
- 니파이인
- 야곱인
- 요셉인
- 조람인
- 레이맨인
- 레이맨인
- 레뮤엘인
- 이스마엘인

야곱인과 요셉인은 리하이 가족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8년간 지내는 동안에 태어난 니파이의 두 동생의 이름에서 나온 것이다. (니일 17:4 참조) 조람인이라 리하이의 가족이 된 레이

벤의 종의 이름을 따서 붙인 것이다. (니일 4:33~35)

레이맨인과 레뮤엘인은 니파이의 형의 이름에서 나온 것이고 이스마엘인은 리하이의 아들들의 장인의 이름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에는 백성들이 단합했었지만, 주후 200년 경에 베도의 물결이 일면서 니파이인의 황금시대는 끝이났고 7개의 고품통이 다시 나타나게 되었다. 이 고품통에 대하여 니파이인의 기록은 세 곳에서 설명하고 있으며, 어디에나 정확히 똑같은 순서로 열거되어 있다. 이 고품통은 교리와 성약에도 기록되어 있다.

열거되어 있는 곳은 아래와 같다. (1) 야곱서 1장 13절. 주전 543년경.

니파이의 죽음 전후의 시기. (2) 니파이 사서 36~38절. 주후 231년경. (3) 불문서 1장 8~9절. 주후 323년경. (4) 교리와 성약 3편 16~18절. 주후 1828년경.

열거되어 있는 기록의 시간적 범위가 니파이인의 1,000년 역사 대부분에 걸쳐 있는 것으로 보아 이상의 7개의 고품통이 리하이의 후손 중에서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400여 년이 지난 현대의 경문의 시대에도 주님께서는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셨음을 유의해야 하겠다.

7개의 고품통은 현재 어디에 있는가? 리하이의 7개의 고품통이 미대륙에 흩어진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분산의 일부이다. 우리는 현재 흩어진 이스라엘의 지파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7개의 고품통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7개의 고품통이 어디인가 존재하고 있음에는 틀림이 없다. 왜냐하면 주께서 그들로 하여금 구세주를 알도록 할 것을 1828년에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교성 3:16~18 참조)

“그러나 어쨌든 내 일은 진행되어 가리라. 이는 유대인의 간증으로 말미암아 구세주에 관하여 세상에 알려진 것과 같이 내 백성에게도 구세주에 관하여 알려질 것이이니,

“곧 저희 조상의 간증으로 말미암아 니파이족과 야곱족과 요셉족과 조람족에게 알려지리라.

“또한 이 간증은 레이맨족과 레뮤엘족과 이스마엘족에게도 알려질 것이라...” (교리와 성약 3:16~18)

이곳에 소개되는 대답은 참고로 쓰여지는 것이며 교회의 교리가 아님을 밝혀둔다.



제프리 알 홀랜드, 교회 교육 위원회 위원

니파이가 레이벤을 죽인 것을 어떻게 비회원 친구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경전에 이런 일이 있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레이벤을 죽인 일에 대하여 논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일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1. 니파이는 그의 작은 판이 제한되어 있었으나 고의로 이 경험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그가 그렇게도 하기 어려웠으며 그렇게도 큰 오해를 불러 일으킨 이 일을 미래의 독자들에게 알리려고 이러한 고통을 당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사건에 대하여 구태여 기록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과 “백성에게 도움이 되는 것”만을 기록하도록 제한된 작은 판에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니일, 6:5, 6) 아마 이에 관한 실마리가 있을 것입니다.

2. 니파이가 어떻게 해서든지 레이벤의 생명을 취하고자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의 생활을 살펴 볼 때 이러한 일을 할 조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실 그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3. 성경을 공부하신 분들은 시내산에서 살인을 금하는 계명을 받은 모세가 주님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 낮게도 한다고 노래한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신 32:39) 모세 자신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 오자마자 우상을 숭배하는 3,000명의 이스라엘 민족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편견은 버린다면 니파이가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레이벤의 칼을 빼앗아 그를 죽인 것에 대해서 얼굴을 찡그리다가 다윗이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골리앗의 칼을 빼앗아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썬” 것에 대해 얼굴 표정을 바꿔 영광적인 갈채를 보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삼상). 성경과 물몬경은 이러한 문제에서 확실히 서로 일치되고 있습니다.

4. 술에 만취되어 니파이 앞에 누워있는 레이벤은 리하이의 가족에게 무죄하지는 않았습니니다. 레이벤에 관해 우리가 아는 것 만

도 (1)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지 않았으며 (2)레이벤을 도둑이라고 비난했고 (3)욕심스럽게도 리하이의 재산을 탐했으며 (4)이를 공공연히 도둑질했고, (5)니파이와 그의 형제들을 두 번이나 죽이려 했습니다. 그는 성신의 말씀대로 “악인”이었으며 바로 주님의 손에 의해 니파이에게 인도되었습니다(니일 4:13)

5. 우리는 “악인”을 판단하는 구약의 표준을 떠나서라도, 말일의 경륜의 시대를 다스리는 율법 안에서 니파이의 엄격한 계명의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며 고백하지 아니하는 자들... 계명으로서 경전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저를 다스릴지니라.

“너희는 이를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거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므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만 율법에 비추어 보아 정당하게 처리하며 너희에게 율법을 주신 이를 노엽게 하지 않도록 처리할지니라. (교성 64:12-13)

레이벤에 대한 심판은 “계시에 의해” 주어진 것이며 니파이는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레이벤을 죽여야 했습니다.

6. 우리는 율법은 율법을 주신 분의 명령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니파이와 마찬가지로 진리를 속삭여 주는 성신을 알고 이에 순종하는 것만이 안전한 길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고 또 어떤 때에는 ‘온전히 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늘 나라의 원리입니다. 계시는 왕국의 자녀들이 처한 환경에 따라 그 적용을 달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 나 옳은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오랜 시간 후에 그 이유를 깨닫게 되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정당하며 옳은 것입니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256페이지)

7. 마지막으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복종하는 것이 이 이야기의 요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현재와 영원을 통해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거의 아무 것도 이루어 주시지 않으십니다.

결국, 이상의 모든 것은(그리고 이 일이 정당하다는 논거를 다들자면 더 길어질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최초의 질문에 대해 적어도 부분적인 대답은 될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의미와 정당한 이유 이외에 이 이야기가 갖는 더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으로 알려진 말씀”의 기록인 신성한 경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니일 3:20)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한 어떤 희생이라도 무릅쓰고 그 기록을 가져 와야만 한다는 니파이의 냉혹한 결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이 경륜의 시대에 문물경이 출현해야 할 근본적인 필요성이나, 지옥의 힘이 소년 예언자가 이 판을 얻는 것을 방해한 이유 그리고 왜 우리가 경전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유를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니파이의 백성이 광야를 여행한 것처럼 우리가 약속의 땅을 향해 여행하는 동안에 신성한 기록을 지니는 것이 “주님의 지혜”입니다. (니일 5:22 참조) 그렇지 않으면 “위축되고 불신앙에 빠져” 멸망할 것입니다(니일 4:13). *

감독과 장로 정원회 회장간의 관계에 관한 지시

대대관장단과 십이사도 평의회는 감독과 장로 정원회 회장간의 관계를 명시하는 성명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와드의 감독과 장로 정원회 회장간의 관계에 관해 일어나는 몇 가지 의문을 명백히 함으로써 이 두 신권 지도자의 역할에 있어서 최대의 효과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강조한다.

감독

1. 감독은 아론 신권 회장으로 서 감리한다.
2. 감독은 와드의 관리 대제사로서, 와드의 모든 회원 즉 남자(대신권 소유자 포함), 여자 그리고 어린이를 통할한다.
3. 감독은 와드 복지 사업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써, 와드 복지 사업과 기타 현실적인 문제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4. 감독은 이스라엘의 보통 판사로서, 신전 추천을 위한 접견을 하고 와드의 모든 회원의 합당성을 판단해야 할 책임이 있다. 범법 사실이 밝혀지면 감독은 감독 재판관을 소집하여 기록상의 회원에게

회원 자격 정지 처분을 할 수 있으며, 대신권 소유자를 제외한 회원을 파문시킬 수 있다. 감독은 회원 자격 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이 필요한 대신권 소유자를 스테이크 부장단에 보고한다.

5. 감독은 와드 신권 집행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이 모임을 감리하고 진행하며 관리 대제사로서 이 모임을 지시한다. 그는 또한 와드 협의회 모임을 감리하고 진행하면서, 와드 회원의 유익을 위해 모든 프로그램을 협의한다.

6. 감독은 관리 대제사로서 와드 신권 집행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그는 와드의 가정 복음 교육 프로그램을 감리한다. 그는 각 가정에서 가정 복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멜기세덱 신권 정원회나 그룹에 지명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멜기세덱 신권 정원회, 그룹 혹은 단위 조직 지도자들은 가정 복음 교육을 관리하고, 그 결과를 월례 개인 신권 접견 시에 감독에게 보고한다.

7. 감독은 와드의 활동에 관해 스테이크 부장에게 보고한다.

장로 정원회 회장

1. 장로 정원회 회장은 정원회의 활동에 관하여 직접 스테이크 부장에게 보고한다. 그는 스테이크 부장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해임된다.

2. 장로 정원회 회장은 회원을 관리하며, 일반적으로 아론 신권을 소유하고 있는 수련 장로들에 관한 책임을 진다.

3. 장로 정원회 회장은 정원회 회원을 훈련할 임무가 있으며, 활동적이고 책임력있는 장로와 수련 장로가 되도록 도와야 할 임무가 있다. 그는 정원회의 각 회원과 수련 장로의 발전 및 활동을 감독에게 보고한다.

4. 장로 정원회 회장은 장로와 수련 장로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들과 그들 가족의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가정 복음교사로서 대제사를 지명해 줄 것을 감독과 다른 멜기세덱 정원회 지도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대제사는 장로 정원회 회장에게 가정 복음 교육 상황을 보고한다.

5. 장로 정원회 회장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가정 복음 교사를 통하여 각 가정이 가정과 교회에서의 임무를 충실히 행하고 있는가를 주의할 책임을 진다. 그러나 정원회 회원의 가정을 관리하지는 않는다. 예컨대 남편과 아내를 불러 결혼 생활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권고를 하거나 정원회 회원의 자녀들에게 권고를 할 권리가 없다. 이러한 문제는 감독에게 알려야 한다.

6. 장로 정원회 회장은 정원회 활동에 관하여 스테이크 부장에게 보고한다. *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에스겔 37 : 16, 17)

